



제1회 부평건강가정포럼

- 한국사회 아버지의 위기와 과제 -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국사회 아버지의 위기와 과제'라는 주제로 제1회 부평건강가정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사회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의 역할만으로도 아버지로서 대접받고,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되는 아버지, 친구 같은 아버지, 아내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남편, 이런 정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가정에서 점점 왕따를 당하게 되고, 홀로 남겨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이미 가정에서 변화해야 될 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버지들은 센터에서 하는 아버지교육에 참석하여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에 적응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사회 아버지들이 처한 위기를 함께 고민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제1회 부평건강가정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회 부평건강가정포럼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주제로서 '한국사회 아버지의 위기와 과제'였고, 두 번째는 젊은 아빠들과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하는 아이, 현명한 아빠 대처법'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강연은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이성직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국사회 아버지의 위기를 베이비부머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베이비부머 시대의 아버지들은 돈=성공, 학벌=성공, 권위적 양육=올바른 양육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로 요약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위기는 일만 하느라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는 점, 너무 억압적인 양육방식을 취한 점,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점, 국가의 아버지 정책의 부재 등이 한국사회 아버지가 처한 위기로 요약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부부중심의 가정생활,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해 보기, 아버지의 권위회복, 따뜻하면서도 냉철한 자기조절력을 높여주는 훈육자의 모습을 갖춰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숭실대학교 기독교상담심리 주임교수인 박승민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서두에 청소년들이 최근에 즐겨하는 게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해주셨는데, 참여한 엄마아빠들 대부분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이 함께할 때, 게임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해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게임에 빠지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평소 자녀와의 관계, 특히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며, 게임이 자녀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게임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함께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게임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억압하기보다, 함께 운동하기, 애완동물 기르기, 동아리 활동 참여하기 등을 통해 다른 취미들로 관심을 이동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강성환 과장님과 계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권도국 센터장님 그리고 주안복지재단 배성훈 사무국장님의 열띤 토론과 질문으로 포럼 시간 내내 활기 있고, 재미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1회로 개최된 부평건강가정포럼이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당일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질문해 주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주안복지재단과 주안장로교회 가정사역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